

HOME > 수행&신행 > 수행&법문

[삼보사찰 천리순례 9일차] 가야산에 이르러 해인삼매(海印三昧)에 드니

△ 박봉영 기자 | 이경민 기자 | ○ 승인 2021.10.09 14:19 | □ 호수 3687 | ☞ 댓글 0



상월선원 만행결사 회주 자승스님을 선두로 천리순례단이 장경판전을 참배하고 있다.

바다에 풍랑이 그치면 삼라만상이 모두 바닷물에 온전히 비치듯이, 우리들 마음 속 번뇌의 물결이 잦아지면 우주의 갯가지 참된 모습이 물속에 도장이 찍히듯(印) 비치는 경지. 이것이 대승 경전의 꽃으로 불리는 '대방광불화엄경'에 나오는 '해인삼매(海印三昧)'다. 해인삼매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할 때 선정에 든 상태를 뜻한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한없이 깊고 넓은 바다에 비유해 중생의 번뇌 망상의 파도가 멈출 때 실상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자각할 수 있는 상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며 부처님께서 얻으신 깨달음, 우리가 불자로서 자각해야 할 모습이다.

법화경 화금경판 석각 및 판각대작불사

서각(판각)	원문	십만원/1자
	108자(한편)	오백만원/1판
전각(석각)	원문(한편)	백오십만원
	팔상도(한편)	백만원/1편
	팔상도/전도	일천만원/1판

팔공총림 동화사 053-980-7973

불교신문TV

더보기 >

행복을 여는 화암스...



행복을 여는 화암스님 염불 7. 아미타...

포토뉴스



[찰나의 화두] 약사여래와 눈을 맞춘다



섹션별 최신기사

중단 역사적 상처 치유...1027법난 41주...
전국 심곡암,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 ...
사회&국제 세상을향키롭게, 굿월드자...
인물 [동정] 정도스님, 가사불사 회향 점...
대중공사 [여시아문] 아이들에게 배운다

"SNS에서
뉴스를

불교신문TV

행복을

행복을 여는 화암

많이 본 기사

- 1 [원파스님의 해
- 2 前 경주 기림사
- 3 불조 해명 계승
- 4 대중사명사 스
- 5 총무원장 원행스
- 6 423km 대장정 호
- 7 "아들 출가시킨
- 8 [불교신문이 만
- 9 "수륙재로 모든
- 10 BBS불교방송 스

화계사 12월 수

화계불교
온라인과 오프라인

① 불교입문 기본반

오랫동안 절에 다녔으나, 불
위하여 참고 재가승이 되기를
원하는 분께

- ▶ 제 1차 : 11월 13일
- ▶ 제 2차 : 11월 20일
- ▶ 제 3차 : 11월 27일
- ▶ 제 4차 : 12월 4일
- ▶ 제 5차 : 12월 11일
- ▶ 제 6차 : 12월 18일
- ▶ 제 7차 : 12월 25일
- ▶ 제 8차 : 1월 1일

신청 및 문의 : 02-1234-5678

최신뉴스

- [동정] 정도스님, 가사
- 심곡암, 코로나19로
- 강릉사회복지관 소모
- 영등포장애인복지관
- 청주불교방송 11월6
- [25교구 뉴스] 봉선사
- 역사적 상처 치유...1
- 정해림 승무 2021 중
- 일진배어링, 경주장
- 박은아 국장 '제6회

해인사 주지 현승스님은 이날 순례 구간 중간 지점인 소리길 입구까지 해인사 대중과 마중을 나왔다. 해인사 주지 스님 환대에 상월선원 만행결사 회주 자승스님은 “순례길을 걸어오는 내내 해인사에서 마련한 현수막을 보고 지친 발걸음에도 힘이 솟았다”며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해인사 주지 스님의 응원에 감사를 전한다”고 전했다.

경남 불자들의 응원 속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이날 27km를 이동해 가야산 해인사에 올랐다. 해인사는 부처님 말씀을 새겨진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법보종찰이다. 고려 현종이 거란의 침입으로 나라의 존망이 달린 상황에서 국난을 극복하고자 초조대장경을 만들었지만 전란으로 모두 불타 없어진 후 고려 고종이 지금의 팔만대장경을 다시 만들었다. 팔만대장경은 목판 8만1258판에 달한다. 800여 년이 지났음에도 그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나 국보로 지정,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해인사는 그간 보존 등의 이유로 팔만대장경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올해 코로나 극복을 염원하며 제한적으로 공개해왔다.

장장 6시간의 걷기에도 순례단은 쉼 없이 대적광전부터 찾았다. 순례단과 일일참가자, 해인사 대중까지 200여 명이 대적광전 앞 꽃으로 장엄된 화엄일승법계도를 따라 걸었다. 대적광전을 지나 해인사의 상징 팔만대장경이 있는 장경판전에 도착한 순례단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대장경을 직접 눈으로 보며 참배를 하는 기회를 얻었다.



순례단이 오전3시40분 새벽 예불을 하고 있다.



동이 트기 전 가을 너른 들판을 걷는 순례단.

수행&신행 '맘마미야' 뮤지컬 가수 등...
문화 정해림 승무 '2021 정해림 찰나의 ...
기획&연재 [주제가 있는 사찰 기행] 화...
출판&문학 부처님의 원음으로 다시 읽...
학술&문화재 동국대 동서사상연구 제16...
복지&상담 강릉사회복지관 소외계층 ...



법공양 (기획PR)





지친 순례단이 아침 공양을 하고 있다.



가야산 해인사로 들어서는 순례단.



순례단의 뒷모습.



거창과 합천 곳곳 마다 해인사 사부대중이 마련한 현수막이 붙어있었다.



코스모스 길을 지나는 순례단.



다리 위를 건너는 삼조스님.



순례 절반 지점에서 참가자가 다리 부상을 당했다.



해인사에 오르는 자승스님과 현응스님.

해인사 사부대중은 이날 순례단을 위해 기꺼이 경내를 개방했다. 공양을 비롯해 잠자리와 샤워실 등을 제공하며 순례단이 잠시나마 편히 쉴 수 있는 편의를 내놨다. 회주 자승스님은 팔만대장경을 오토이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에게 순례단 환영에 대한 감사 의미로 상월선원 만행결사 상징인 장군 죽비를 내렸다.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은 죽비를 세 번 치며 “첫 번째 죽비는 순례단에 대한 진심어린 환영 인사와 함께 해인사 대중이 단 하루라도 불편 없이 잘 외호하겠다는 의미를 담았고 두 번째 죽비는 스님은 자비의 법성을 재가 신도는 이고득락을 성취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세번째 죽비는 423km를 걸으며 삼보사찰의 긴 여정을 순례하는 이 공덕이 이 사회에 회향돼 국민이 평안하고 나라가 태평하게되길 바라는 의미”라고 했다.

해인사 방장 원각스님은 천리순례단의 원력과 정진을 치하하는 법어를 내렸다. 원각스님은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한국불교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다며 “천리순례단이 순례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부처님법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부대중이 자연 속에서 함께 수행하고 점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모두가 부처의 삶, 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혼자가 아닌 대중의 힘으로 이 공덕이 일체중생에게 회향할 수 있도록 하자”고 설했다.

천리순례단은 이날 해인사가 마련한 운동장 천막 텐트에서 9일차 밤을 지낸 뒤 다음날 경북 고령으로 향한다.



법계도를 도는 순례단.



자승스님이 현응스님에게 장군 죽비를 내리고 있다.



순례단을 맞이하는 해인사 사부대중.



불교신문 주간 오심스님.



해인사 방장 원각스님이 법어를 내리고 있다.



가야산을 향해 가을 길을 걷는 순례단.

해인사=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사진=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봉영 기자 | 이경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0일차] 245km 걸어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8일차] ② 순례단 찾...
- ↳ [삼보사찰 천리순례 7일차] 조금만 더 가...
- ↳ [삼보사찰 천리순례 6일차] ② 자승스님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5일차] 힘들어도 자비...
- ↳ [삼보사찰 천리순례 3일차] 안개 자욱한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2일차] ② 사찰 참배...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일차] ② 삼보의 의...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① 비바람 불...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2일차] ① 누적 295k...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3일차] 발톱이 들리...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4일차] ② '적극적 포...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7일차] ① 마지막 고...
- ↳ [삼보사찰 천리순례 특집] 불교중흥을 위...
- ↳ [삼보사찰 천리순례 8일차] ① 견디고 참...
- ↳ 포교원, 포교종책 마련 위한 토크콘서트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6일차] ① 청매선사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4일차] 지리산 가거든...
- ↳ [영상] 삼보사찰 천리순례 입재식...한국불...
- ↳ [삼보사찰 천리순례 2일차] ① 함께 걷는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일차] ① 한국불교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② "딸과 평생...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2일차] ② "부부 아니...
- ↳ [삼보사찰 천리순례] 사명감 하나로 밤낮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7일차] ② "우리 모두...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8일차] 대장정 회향...

댓글 0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 최신순 추천순

신문사소개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RSS



우)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건지동), 전법회관 5층 불교신문사 | 편집국 : 02-733-1604 | 구독문의 : 02-730-4488 | 광고문의 : 02-730-4490

사업자등록번호 : 102-82-02197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6446 | 창간일 : 1960-01-01 | 등록일 : 1980-12-11

제호 : 불교신문 | 발행인 : 원행스님 | 편집인 : 현법스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여태동

Copyright © by 불교신문. 기사등 모든 콘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를 금합니다.

POWERED BY **NE**